



香 遠 亭

香遠亭! 아직도 우리들 귀에 익지 않은 생소한 이름이다. 名山大川 어느 山水 좋은곳에 옛 風流客들이 놀던 정자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九重宮闕 깊은 곳 乾清宮 옆 연못안에 있는 자그마한 亭子이름이다.

近世史의 風雲속에 살아온 高宗이 閔妃와 더불어 꽃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을 이곳에 나와 하염없는 心情을 달래며 기울어져 가는 國運을 바로잡아 보려고 깊은 想念에 잠기던 곳이며 政務에 시달린 國王이 宮女들을 데리고 잠시 머리를 쉬기도한 浪漫이 서려있는 곳이다.

그러나 閔妃는 及其也 乾清宮에서 日本 浪人들의 손에 의해 悲運의 殺害를 당하는 애절한 사연을 남기고 지금은 빈터만 무심히 남아있다.

이 冷酷한 歷史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香遠亭이 우리나라에서 電氣를 처음으로 發電하여 韓國電力史의 濫觴을 이룬 由緒 깊은 곳이라는 事實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 ×

李太祖가 새로 나라를 세우고 開城에서 南下하여 無學大師의 권고에 따라 往十里에서 10리를 더가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지금의 景福宮이다.

景福宮은 1393년에 建立되어 東쪽에는 先祖의 位牌를 모시는 宗廟를 짓고 西쪽에는 國土와 糧穀을 관장하는 社稷壇을 세워 宮闕의 형태를 갖추고 歷代 國王들이 이곳에서 政務를 보살피며 李朝 500년의 國基를 다져왔다.

그후 景福宮은 壬辰倭亂으로 소실되었으나 1867년에 大院君에 의해 再建되고 1873년에 高宗과 閔妃가 居處할 乾清宮도 新築되었다.

이때 後園에는 風水地理說에 의해서 물줄기를

境內로 끌어들이어 연못을 파고 이곳에 香遠亭을 세워 景觀을 아름답게 가꾸었다.

光化門을 지나서 國立博物館(舊 中央庁)을 거쳐 景福宮을 걸어 올라가면 끝부분에 乾清宮 옛터가 있고 그옆 잔잔한 연못 가운데 아담한 六角의 亭子가 서있다.

그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은 自然환경과 調和를 이루어 한쪽의 東洋畵를 보는 느낌이다.

現代建築學者들도 이 궁궐 내부의 構圖의 정확성, 섬세한 造景構造, 山水에 대한 傳統思想의 결합등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비록 至尊의 身分이 아니더라도 이 연못의 주변을 걸어가 보면 지난날 香遠亭에 서려있는 歷史의 哀歡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깊은 感想에 잠기게 한다.

× × ×

1882年 5月 22日 韓美修好通商協定이 체결됨에 따라 隱遁의 나라 우리 韓國은 鎖國에서 벗어나 비로소 西歐文明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初代 駐韓公使로 후트가 任命되어 着任 하자 우리나라에서도 1883年 8月 閔泳翊을 全權大臣으로 洪英植을 副大臣으로한 答禮使인 君主 特派協辯交涉通商使節團을 渡美케 하여 國際交流를 시작했다.

이때 異國의인 西歐文物을 처음으로 대하게 된 이들은 모두가 驚異와 神秘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당시 美國에서도 발명한지 얼마되지 않은 電氣가 급속도로 普及되고 있는데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1884年 9月 4日 에디슨會社에 宮中에서 쓸 電氣發電 施設 一切를 주문하였다.

이 電氣 導入 계획은 1884년에 일어난 甲申政

變으로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1886年 美國 에디슨會社가 電氣 技術者 윌리엄·맥케이(William Mokay)를 파견하여 乾淸宮 옆 香遠亭 연못가에 처음으로 3 KW 蒸氣發電機 2 台를 설치 하고 100燭光의 아크燈 2 個를 架設하였다.

香遠亭 架橋와 우물증간지점 연못가에 洋式 建物を 세우고 큰 물탱크 3 개와 여러가지 기계가 설치되어 1887年 試運轉에 들어갔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現代文明의 象徴인 電燈이 켜진 嚆矢이다.

다못 유감스러운 것은 이 發電機가 運轉되어 최초로 電氣點燈이 된 날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 ×

電氣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신비와 두려움이 뒤섞인 것이었다.

文明의 빛인 電燈이 點火되자 九重深處의 乾淸宮 殿閣이 찬연히 부각되어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빛에 놀라고 공포에 사로 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電氣불을 “서양도깨비 불” 이라고 불렀고 또 언제인가 전달불(乾達火)이라는 異名이 붙기도 했다. 처음에는 기계조작기술이 익숙하지 못해 고장이 잦았던 탓으로 그때마다 停電이 되어 전달군과 같이 재멋대로 켜졌다 꺼졌다 하며 거기다 費用도 막대하게 들었기 때문에 부처진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이때에 發電機는 蒸氣動力이었기 때문에 그 蒸氣機關의 冷却用水가 熱湯이 되어 香遠亭 연못에 瀉流되므로 연못의 고기가 떼주검을 당하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고 호화로운 電燈이 蒸魚를 만들었다고 “蒸魚는 亡國의 徵兆”라는 故事를 引用해서 썩근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1879年 에디슨이 白熱球를 발명한지 불과 8 年후인 1887年에 西洋文化를 먼저 받아 들인 日本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電氣를 도입하여 點火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 × ×

그후 우리나라의 電力事業은 日帝의 植民地 政策, 8.15解放, 北韓의 斷電, 6.25動亂 等 迂餘曲折 속에서 電力難時代를 겪어왔다.

3社 統合後 電力事業이 점차 安定단계에 이른 1965年頃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電氣가 들어온 날을 찾아서 「電氣의 날」을 制定하고 記念行事를 開催하자는 意見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各界에 依頼하여 調査에 착수했는데 때마침 孫道心씨(前 서울신문社長)가 이 말을 傳해 듣고 調査한 結果 梅泉野錄에서 1900年 4 月 10日 서울 鍾路에서 처음으로 電燈이 點火되었다는 事實을 考證해 주었다.

이 事實은 宮中에서 發電機를 설치하고 點燈한지 13年이나 경과한 後의 일이므로 우리나라 最初의 電氣 點火日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民間 點火日로서 뜻이 있으며 文獻上으로도 확실한 4 月 10日을 “電氣의 날”로 제정하는 행정절차를 밟아 1970年 商工部 令으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電氣의 날 行事를 汎電力界의 참여와 호응을 받아 國家行事로 치르기 위해 1966年 4 月 10日 “第1回 電氣의 날” 행사를 韓電에서 大韓電氣協會로 이관하여 거행하였다.

× × ×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人傑은 간 데 없는 景福宮內를 돌아보며 香遠亭 연못가를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걸음을 멈추고 여기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電氣가 들어온 곳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라오.....

電氣가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100年!

그동안 電力이 우리나라 에너지界에 기여한 영향을 되새기면서 未來의 座標를 가늠해 보자는 100週年 記念行事가 多樣하게 各地에서 舉行되고 있어 기쁘고 마음 든든하기도 하다.

다못 이와 같은 外向的인 여러가지 行事와 아울러 香遠亭 옆 發電機를 설치하였던 자리에 “韓國電氣의 發祥地”라는 비석 표말 하나라도 세워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알렸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을 이곳에 돌아보면서 느끼게 된다.

이것은 잊혀져 가는 우리의 歷史를 되새겨 보는 것이며 電氣事業의 傳統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뜻있는 100週年 記念事業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暢)